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위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공 은 희

경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Effects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on Certified Geriatric Caregivers in a Nursing Home

Kong, Eun-Hi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n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valuate the long-term effects of a dementia education program for certified geriatric caregivers (CGCs) caring for elders with dementia in a nursing home.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nd included 29 CGCs who completed the pre-test, dementia education program, and post-test (immediately after, 1 month after, and 3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The education program was conducted for 3 weeks, and effects of the program were evaluated using measures of knowledge of dementia, care of elders with dementia, work stress, and work satisfaction. **Results:**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knowledge of dementia, it was significantly improved immediately after the program ($Z=-2.03, p=.042$).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are of elders with dementia by the CGCs ($\chi^2=13.37, p=.004$), but no significant changes in work stress or work satisfaction.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dementia education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knowledge of dementia and care of elders with dementia by CGCs. The results also provide valuable basic data for developing effective dementia education programs for CGCs in nursing homes, but further research is needed using a high quality education programs and research methodology.

Key Words: Nursing home, Dementia, Caregiver, Educ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급속히 증가되어서 2010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3,312개소에

이르렀다(Kim, 2010). 노인요양시설의 주된 간호인력인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1일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하여 신설된 자격으로,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의 생활지도원(간병인)보다 기능 및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한 제도이다. 요양보호사는 2010년 4월 기준 약 81만 명이 배출되었으며, 이중 약 21만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Kim, 2010).

주요어: 요양시설, 치매, 요양보호사, 교육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ong, Eun-Hi,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n University, San 65 Bokjeong-dong,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461-701, Korea. Tel: 82-31-750-5984, Fax: 82-31-750-8859, E-mail: ehkong@kyungwon.ac.kr

- 이 논문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일반연구자 지원사업(KRF-2009-0071999)의 지원과 2008년도 경원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RF-2009-0071999) in 2009 and the Kyungwon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08.

투고일 2010년 8월 12일 / 수정일 1차: 2010년 9월 28일, 2차: 2010년 11월 1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14일

요양보호사를 위한 교육기관으로는 2010년 현재 전국에 1,407개 기관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 교육기관들은 2010년 4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전까지는 인증제가 아닌 신고제 이어서 많은 자격미달의 교육기관들이 교육의 질에 관한 검증 없이 난립, 부실 운영되어 왔다(Byun & Seok, 2010; Kim, Shin, & Ha, 2010). 또한 2010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전까지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제한이나 국가 자격시험 없이 단지 교육수료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보수교육의 미비로 요양보호사의 낮은 전문적 직무능력과 서비스의 질이 문제 제기되어 왔다(Byun & Seok, 2010; Kim et al., 2010).

2010년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8.8%로 추정(Kim, 2010) 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시설대상자의 60.6%가 치매노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2010). 이렇게 치매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이 보고(Kim, Lee, Yoo, & Park, 2007; Lee, Park, Choi, & Lee, 2005)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교육과 치매보수교육의 실시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에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까지 단지 소수의 연구들이 치매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간호보조인력의 치매지식을 측정하였다(Cohen-Mansfield, Werner, Culpepper, & Barkley, 1997; Featherstone, James, Powell, Milne, & Maddison, 2004; Schonfeld et al., 1999; Tannazzo, Breuer, Williams, & Andreoli, 2008).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치매노인의 간호방법이며, 특히 문제행동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Kovach, Kelber, Simpson, & Wells, 2006; Monahan, 1993). 선행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생활지도원)들이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간호문제 중 하나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며(Ko, 2006), 간병활동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 중 한 영역으로 보고되고 있다(Bae, 2006).

요양보호사(생활지도원, 간병인)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스와 서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ng, 2009; Kwak, 2010; Oh, 2008; Park, 2009).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노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Jang, 2009), 직무만족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h, 2008).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만족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wak, 2010; Park, 2009).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된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이 치매지식, 간호 서비스,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국외에서 보고된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일반적 특성, 치매 관련 교육경험, 치매교육 요구를 파악한다.
-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간호,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을 교육 전, 교육 직후, 교육 후 1개월 후, 교육 후 3개월에 측정하고 비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41명의 요양보호사이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

- 노인요양시설에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노인요양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현재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자
- 시각, 청각, 의사소통, 인지에 장애가 없는 자
- 최근 2개월 동안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자
- 본 연구가 실시되는 전 기간 동안 다른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없는 자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동의한 자

연구참여 대상자수를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test (반복측정 분산분석), 효과 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correlation among repeated measures .30, nonsphericity correction 1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32명으로 약 30% 탈락률을 고려하여 41명의 대상자를 포함시켰다. 사전 조사와 1차 사후 조사, 2차 사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41명이었으며, 이중 5명이 이직 또는 사직으로 중도 탈락되어서 3차 사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36명이었다. 결측값이 많은 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연구대상자는 29명이었으며, post-power analysis에서의 검정력은 .76이었다.

3. 연구도구

1) 치매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치매교육 프로그램은 ‘노인요양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systematic review)한 국외선행연구(Kuske et al., 2007)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 요양보호사 교육담당 간호사, 요양시설의 책임자가 함께 개발하였고, 사전 조사결과 나타난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요구를 반영하여 수정한 후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치매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강사 강의(50분), 비디오 시청(10분), 요양보호사들의 토의(30분)로 구성하였다.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1회차 강의주제는 “치매의 이해”였으며, 강의 구성내용은 치매의 원인, 증상, 치료, 예방법, 의사소통방법, 가족 이해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1회차 강의 목표는 “치매의 원인, 증상, 치료, 예방법, 치매노인 및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였다. 2회차 강의주제는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간호”였으며, 교육내용은 문제행동의 원인, 종류, 문제행동관리 및 간호중재가 포함되었다. 2회차 강의목표는 “치매노인 문제행동의

원인과 간호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효율적으로 적용한다”였다. 3회차 강의주제는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간호”였으며, 교육내용은 치매노인의 목욕, 위생, 욕창, 배설, 식사, 환경에 관한 것였다. 3회차 교육목표는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간호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의 원인과 간호방법을 이해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일상생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였다. 비디오시청은 강의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치매가족협회에서 제작한 “아름다운 동행: 치매간호 함께 나누는 지혜 1부, 2부”를 사용하였다.

1회차 교육의 토의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기소개와 요양보호사가 된 동기”가 포함되었다. 1회차 토의목표는 “대상자들 간의 친밀감 증진, 토의에 대한 거부감 감소와 참여 증진, 요양보호사가 되기로 결정한 초심을 회상하는 기회를 가진다”였다. 2회차 교육의 토의내용은 “어렵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와 만족과 보람을 느낄 때”가 포함되었다. 2회차 토의목표는 “직무와 관련된 어려운 상황과 보람을 느낀 상황의 표현과 토의를 통해 스트레스의 완화와 만족의 증진을 도모한다”였다. 3회차 교육의 토의내용은 “효과적인 치매노인 케어방법, 본인이 가장 잘 한다고 생각하는 치매노인 케어, 치매노인 케어와 관련해서 배우고 싶은 내용, 기타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3회차 토의목표는 “효과적인 치매노인 케어 방법을 공유, 보완, 강화함으로써 치매노인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였다.

2) 치매지식

치매에 대한 지식은 Cho (1999)가 개발한 치매지식에 관한 도구 16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치매의 위험요인, 기능변화,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범위는 0~16점이다. Cho (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68$ 이었다.

3) 치매간호

치매간호는 Hwang (1999)이 개발한 도구 2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문제행동대처, 안전도모, 자극 및 활동 제공, 신체적 건강도모, 일상활동 기능유지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1점: 전혀 안 한다~5점: 아주 잘한다)이며, 점수범위는 27~13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간호를 잘 실

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Bae (2006)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였다.

4) 직무 스트레스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기존의 관련도구를 Lee (2004)가 간병인들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환자 관련문항, 업무 관련문항, 대인 관계문항, 경제 관련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이며, 점수범위는 17~8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 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였다.

5) 직무만족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은 기존의 관련도구들을 간병인들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Jung (2003)이 수정하고 개발한 직무만족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이며 업무 자체에 관한 문항과 이직의사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이며, 점수범위는 15~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 (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68$ 이었다.

4. 자료수집

연구자가 서울특별시 소재 요양보호사가 50인 이상 근무하는 노인요양시설들을 방문하여 연구소개(목적, 방법, 혜택, 위험성, 익명성)를 하였고, 이 중 일 노인요양시설에서 연구참여를 동의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연구협조동의서를 받은 후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책임자와 간호교육 담당자들의 협조를 얻어 요양보호사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목적, 방법, 기간, 혜택, 위험성, 익명성, 참여자의 권리)을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41명의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였다. 노인요양시설 책임자와 요양보호사 교육담당 간호사의 협조를 얻어서 본 연구가 실시되는 전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들에게 어떠한 치매교육도 실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사전 조사는 2009년 7월에 실시하였다. 치매교육 프로그

램은 2009년 8월에 3주 동안 1회에 1시간 30분씩 총 3회에 걸쳐서 4시간 30분 동안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1주에 2회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치매교육 프로그램 중 강의는 모두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실시 준비를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교육담당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인 연구보조원 3인이 참여하였다. 대상자 토의 시간에는 많은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도록 좌석배치, 간식 마련, 서로 어깨 주물러주기 등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도한 후에 연구자의 진행 하에 대상자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대상자에게 교육자료를 배포하여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사후 조사는 치매교육 프로그램 종료 직후(2009년 8월 4주), 1개월 후(2009년 9월 4주), 3개월 후(2009년 11월 4주)에 실시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사전 조사 후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3주간 받고, 사후 조사 1(교육 직후), 사후 조사 2(교육 후 1개월 후), 사후 조사 3(교육 후 3개월 후)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모든 자료수집이 끝난 후 본 연구의 대상자가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치매교육과 교육자료를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양측검정 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치매 관련 교육경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치매지식, 치매간호,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은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정규성 검정(Shapiro-Wilk Test)결과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종 연구대상자 수가 29명으로 표본의 수가 30 미만이므로 비모수검정 방법인 Friedman test (Han & Lee, 2006)를 사용하여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의 측정 시점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쌍체표본 평균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는 총 29명으로 모두 여성이었고, 요양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29 (100.0)
Age (year)	45~49	4 (13.8)
	50~54	10 (34.5)
	55~59	15 (51.7)
Education	< High school	9 (31.0)
	≥ High school	19 (65.5)
Marital status	Married	22 (75.9)
	Unmarried	1 (3.4)
	Others	4 (13.8)
Religion	Protestant	16 (55.2)
	Catholic	5 (17.2)
	Buddhism	2 (6.9)
	None	5 (17.2)
Subject's income (10,000 won)	51~99	23 (79.3)
	100~149	6 (20.7)
Weekly working hours	40~44	27 (93.1)
	55~59	2 (6.9)
Dementia-caregiving work experience (month)	≤ 12	7 (24.1)
	13~36	3 (10.2)
	37~60	7 (24.1)
	61~120	10 (34.5)
	≥ 121	2 (6.9)
Type of work	Three shift	29 (100.0)
Number of care-receiver	< 10	2 (6.8)
	10~19	8 (27.6)
	20~29	19 (65.5)
Family member with dementia	Yes	5 (17.2)
	No	24 (82.8)

Note. No response is excluded.

호사의 연령은 55세부터 59세가 15명(51.7%)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 19명(65.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대다수인 22명(75.9%)이 기혼상태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16명(5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톨릭과 무교가 각각 5명(17.2%)으로 많았다. 본인 월소득은 51만원부터 99만원 사이가 23명(79.3%)으로 가장 많았다. 일주일당 근무시간은 40~44시간이 27명(93.1%)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형태는 모두 3교대였다. 치매노인을 돌본 근무기간은 61개월 이상이 12명(41.4%)으로 가장 많았다. 일일 돌보는 노인 수는 20~29명이 19명(65.5%)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중 현재 치매를 가지고 있거나 치매를 앓다가

사망한 가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24명(82.8%)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2. 대상자의 치매 관련 교육경험 특성

요양보호사의 치매 관련 교육경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요양보호사들의 치매교육경험은 4회 이상이 21명(7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전에 교육을 받은 치매교육내용으로는 치매노인 대처, 관리 및 간호방법이 11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치매, 치매증상의 특성, 개별 간호, 치매예방, 치매노인과 의사소통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31.3%의 요양보호사들은 기술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교육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치매교육의 효과에 관해서는 28명(96.5%)의 요양보호사들이 ‘매우 유익했다’ 또는 ‘약간 유익했다’고 응답하였다. 치매교육이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모든 대상자가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치매교육과 관련된 교육요구는 Table 3과 같다.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가장 힘들거나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기술해 달라는 질문에 요양보호사 14명(48.3%)이 ‘치매노인의 대변, 소변의 관리와 처리’라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30% 이상의 요양보호사들이 치매노인이 ‘밤에 잠 안자고 소란, 옆사람 괴롭힐 때’, ‘욕실, 폭행, 공격적인 행동, 포악해질 때’, ‘배회행동,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라고 기술하였다. 치매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 내용으로는 치매예방방법이 8명(27.6%), 치매 케어와 대처방법이 7명(24.1%), 치매의 원인이 4명(13.8%), 치매노인 가족상담이 1명(3.4%)으로 나타났다. 31.3%의 요양보호사들이 치매와 관련해서 교육받고 싶은 내용을 묻는 문항에 기술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이전에 받은 교육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어떤 내용을 교육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3.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1) 치매지식

치매지식을 비모수분석의 Friedman test로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치매지식은 교육 참여 전 10.3점, 교육 참여 직후 11.5점, 교육 참여 1개월 후 11.3점, 교육 참여 3개월 후 10.9점으로 교육 참여 전과 비교했을 때 교육 참여 후에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

Table 2. Previous Dementia Education-related Experience of Subjects

(N= 29)

Item	Categories or description	n (%)
Experience of dementia education	1	3 (10.3)
	2	1 (3.4)
	3	3 (10.3)
	≥4	21 (72.4)
Contents of previous dementia education	Coping, management, care of elders with dementia	11 (37.9)
	Characteristics of symptoms in dementia	2 (6.9)
	Individual care	2 (6.9)
	Dementia	3 (10.2)
	Prevention of dementia	1 (3.4)
	Communication with elders with dementia	1 (3.4)
Effect of dementia education	Very helpful	19 (65.5)
	A little helpful	9 (31.0)
Needs of dementia education	Very much	9 (31.0)
	Some	20 (69.0)

Note. No response is excluded.

Table 3. Dementia Education-related Needs of Subjects

(N= 29)

Item	Response	n (%)
Difficulties in caring for elders with dementia	Management and cleaning up defecation and urine of elders with dementia	14 (48.3)
	Sleep disturbance, nighttime behavior problems, & bothering other residents	10 (34.5)
	Cursing, hitting, aggressive behaviors, & combativeness	9 (31.0)
	Wandering & trying to go to outside	9 (31.0)
	Stubbornness and uncooperativeness with a bath	8 (27.6)
	Constant demands of snack, meal, & medication	7 (24.1)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 language problem	7 (24.1)
Contents to learn related to dementia	Prevention of dementia	8 (27.6)
	Care and management of dementia	7 (24.1)
	Causes of dementia	4 (13.8)
	Counseling of family caregivers of elders with dementia	1 (3.4)

Note. No response is excluded. Multiple responses are allowed.

로 나타났다($\chi^2=3.97, p=.265$) (Table 4). 그러나 시점 간 비교를 비모수 쌍체표본 평균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교육 참여전과 교육 참여 직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2.03, p=.042$). 다른 시점들 간의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2) 치매간호

치매간호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치매간호는 교육 참여전 118.2점, 교육 참여 직후 122.5점, 교육 참여 1개월 후 124.0점, 교육 참여 3개월 후 125.2점으로 교육 참여전과 비교했을 때 교육 참여 후에 점수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3.37, p=.004$) (Table 4). 시점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교육 참여전과 교육 참여 1개월 후($Z=-2.17, p=.030$), 그리고 교육 참여 전과 교육 참여 3개월 후($Z=-3.30, p=.001$) 사이에 치매간호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다른 시점들 간의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3)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교육 참여 전 48.4점, 교육 참여 직후 46.4점, 교육 참여 1개월 후 48.0점, 교육 참여 3개월 후 49.8점으로 나타

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90, p=.116$) (Table 4). 시점들 간의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4) 직무만족

직무만족을 분석한 결과, 영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은 교육 참여 전 59.9점, 교육 참여 직후 60.4점, 교육 참여 1개월 후 59.8점, 교육 참여 3개월 후 60.1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0.20, p=.977$) (Table 4). 시점들 간의 비교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영양보호사들에게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 및 추후연구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들은 72.4%가 치매교육경험이 4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에 받은 치매교육내용을 기술하라는 문항에 대상자의 31.3%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여 기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영양보호사들의 교

육 참여 전 치매지식이 16.0점 만점에 10.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치매노인 돌봄 기간이 훨씬 짧은 대상자들을 포함시킨 선행연구들에서의 낮은 지식점수 9.7점(Hwang, 1999), 9.8점(Bae, 2006)과 유사하다. 또한 대상자 모두가 치매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98.5%의 영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이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Bae, 2006)의 결과와 유사하며,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영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질 향상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치매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한다고 본다.

치매와 관련해서 교육 받고 싶은 내용을 묻는 문항에는 대상자의 69%만 답변을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치매예방법, 치매케어와 대처방법, 치매의 원인, 치매노인 가족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치매예방법’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치매는 잘 치료되지 않아서 예방이 중요한 것 같고, 대상자들이 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치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노인들도 돌보고 있으며, 치매노인을 돌볼수록 본인 자신은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매예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내용인 ‘치매케어와 대처방법(24.1%)’은 대상자의

Table 4. Mean Scores of Dependent Variables over Time

(N= 29)

Dependent variables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Posttest 3	χ^2	p
	M±SD	M±SD	M±SD	M±SD		
Dementia knowledge	10.3±2.11	11.5±2.06	11.3±2.35	10.9±2.88	3.97	.265
Dementia care	118.2±11.71	122.5±8.83	124.0±7.80	125.2±9.68	13.37	.004
Work stress	48.4±11.82	46.4±9.80	48.0±9.51	49.8±10.47	5.90	.116
Work satisfaction	59.9±5.23	60.4±4.55	59.8±5.21	60.1±4.82	0.20	.977

Table 5. Results of Wilcoxon Signed-rank Test on Dependent Variables

(N= 29)

Variable	Posttest 1 ~ Pretest	Posttest 2 ~ Pretest	Posttest 3 ~ Pretest	Posttest 2 ~ Posttest 1	Posttest 3 ~ Posttest 1	Posttest 3 ~ Posttest 2
	Z (p)	Z (p)	Z (p)	Z (p)	Z (p)	Z (p)
Dementia knowledge	-2.03 (.042)	-1.93 (.054)	-0.81 (.418)	-0.79 (.429)	-1.17 (.243)	-0.43 (.666)
Dementia care	-0.94 (.346)	-2.17 (.030)	-3.30 (.001)	-0.19 (.852)	-0.93 (.353)	-0.39 (.696)
Work stress	-1.19 (.235)	-0.02 (.988)	-1.89 (.059)	-0.69 (.493)	-1.77 (.077)	-1.05 (.295)
Work satisfaction	-0.31 (.754)	-0.23 (.819)	-0.17 (.862)	-0.40 (.691)	-0.60 (.547)	-0.76 (.446)

37.9%가 이미 교육을 받았던 내용으로 요양보호사들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치매보수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선행연구(Bae, 2006)에서 보고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병인들의 지식 중 가장 부족한 것이 치매간호라는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치매지식점수는 교육 참여전과 비교했을 때 교육 참여 직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매지식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참여 직후 간호 보조인력의 치매지식이 교육 참여전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국외의 선행연구들(Cohen-Mansfield et al., 1997; Featherstone et al., 2004; Schonfeld et al., 1999; Tannazzo et al., 2008)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 참여 후 1개월 또는 3개월 후의 지식점수에 있어서는 본 연구결과는 Cohen-Mansfield 등(1997)과 Schonfeld 등(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지식점수가 감소하였는데, Tannazzo 등(2008)의 연구에서는 교육 참여 직후의 지식점수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치매교육 프로그램이 요양보호사의 치매지식에 미치는 효과와 지속기간에 관한 종단적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후 그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보수교육과 더불어 Kuske 등(2007)의 연구에서 제안된 강화요인(동료들의 지지, 조언, 피드백)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와 그 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요양보호사의 치매간호는 교육 참여 전과 비교했을 때 교육 참여 후에 점수가 점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치매간호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참여 후 간호보조인력의 인지적 및 행동적 대처방법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Featherstone 등(2004)의 연구와 대상자 중심적인 행동이 더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Gaspard, Garm, Harriman과 Scheffler (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치매간호점수가 교육 참여직후 보다 교육 참여 1개월 후에 더 높고, 교육 참여 3개월 후에는 훨씬 더 높아짐은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하며, 향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기간과 효과평가 측정시점을 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 검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점수가 교육 참여전과 비교하여서 참여 직후

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치매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교육직후와 교육 참여 1개월 후의 요양보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유발은 치매노인간호와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VonDras, Flittner, Malcore, & Pouliot, 2009),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Kwak, 2010; Park, 2009; VonDras et al., 2009), 간호서비스의 질(Jang, 2009)과 이직의도(Kwak, 2010)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인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와 거주노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간호중재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점수는 교육 참여 전과 비교하여 교육 참여 직후에 약간 증가하고, 교육 참여 후 1개월 후에 감소하였다가, 교육 참여 3개월 후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Tannazzo et al., 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Tannazzo 등(2008)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직무만족점수가 교육 참여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내적 직무만족점수만 보았을 때는 교육 참여 직후와 교육 참여 1개월 후의 기간 동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교육에 대한 만족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고(Sung, Chang, & Tsai, 2005; Weon, 2009),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돌보는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Oh, 2008)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효과적인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장점은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전문적 능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연구라는 것이다. 그리고 치매교육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 선행연구, 전문가들의 의견 뿐만 아니라 교육의 대상자인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요구를 반영한 점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관련하여 학문적, 실무적, 교육적, 사회적 유용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 학문적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첫 국내 간호연구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간호인력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거의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교육중재에 관한 국내 또는 국외의 간호지식을 향상시킬 것이다. 실무영역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실무적용이 요양보호사들의 치매지식, 치매간호를 증진 및 강화하는데 기여하여서 치매 노인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영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치매보수교육내용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요양보호사들에게 필요한 치매보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간호 인력의 질 관리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대조군과의 비교가 없는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방법을 사용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수가 적으므로 연구결과를 다른 대상자들에게 확대, 일반화하여서 적용할 경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추후연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한다. 첫째, 국내에서는 유사한 선행연구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국외에서 보고된 소수의 연구들에서는 다양하고 상이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실시기간, 측정시점,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므로 반복적인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까지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요양보호사(간호보조인력)의 변수만 주로 측정한 점(Kuske et al., 2007)을 감안할 때 추후연구는 치매노인변수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Maas, Specht, Buckwalter, Gittler, & Bechen, 2008). 넷째,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강의내용구성에 있어서 국외선행연구(VonDras et al., 2009)들에서 제안한 윤리적 이슈, 직무 스트레스 대처방법, 직무만족도 증진 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추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전달방식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포함시킨 대상자 토의 이외에도 교육대상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그 효과를 요양보호사들의 치매지식, 치매간호,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면에서 검증하여서 실무영역에서의 활용가능성을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후 요양보호사의 치매지식 점수와 치매간호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와 직무만족 점수는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직후에 약간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첫 국내 간호연구로서, 관련 간호지식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실무적용은 요양보호사들의 치매 지식, 치매간호를 증진 및 강화하여서 치매노인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치매교육 프로그램이 요양보호사에게 미치는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연구를 제안하며,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강의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증진을 위한 내용도 추가 포함하기를 제안한다. 더불어 치매교육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도 수행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Bae, Y. J. (2006). *Carers' knowledge, attitude, and care activity for senile dementia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Byun, S., & Seok, J. (2010). Quality assurance strategy for long-term care workforce. I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d.),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rformance-oriented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pp. 193-220).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ho, H. O. (1999). *A study on public'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Choi, H. (2007). A study on work stress, satisfaction, and dementia attitudes of social care work force of dependent eld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3), 175-199.

- Cohen-Mansfield, J., Werner, P., Culpepper, W. J., & Barkley, D. (1997). Evaluation of an inservice training program on dementia and wander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3*(10), 40-47.
- Featherstone, K., James, I. A., Powell, I., Milne, D., & Maddison, C. (2004). A controlled evaluation of a training course for staff who work with people with dementia. *Dementia, 3*(2), 181-194.
- Gaspard, G., Garm, A., Harriman, C., & Scheffler, L. (2009). Evaluating the caring Journey: Results of a dementia education demonstration project. *Canadian Nursing Home, 20*(1), 31-35.
- Han, S. S., & Lee, S. C. (Eds.). (2006). *SPSS Revised nursing · public health statistical analysis*. Seoul: Hyunmoonsa.
- Hwang, S. Y. (1999). *A study on the levels of dementia-related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among nursing assistants caring for institutionalized elders with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 Jang, M. A. (2009). *Impact of job stress on caregiving service in the long-term care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 Jung, M. (2003). *A study of caretaker'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work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 H., Shin, J. H., & Ha, J. M. (2010). The experience of long-term caregiver education cours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1), 1-20.
- Kim, S. M., Lee, Y. J., Yoo, S. J., & Park, M. J. (2007). Hassles in caring dementia patients at home: From family caregivers perspectiv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 357-366.
- Kim, W. (2010). Two years into LTCI implementation: Experience and policy vision. I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Ed.),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rformance-oriented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pp. 33-63).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 C. H. (2006). *A study on improving care service for elders with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Wanju.
- Kovach, C. R., Kelber, S. T., Simpson, M., & Wells, T. (2006). Behaviors of nursing home residents with dementia: Examining nurse response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32*(6), 13-21.
- Kuske, B., Hanns, S., Luck, T., Angermeyer, M. C., Behrens, J., & Riedel-Heller, S. G. (2007). Nursing home staff training in dementia care: A systematic review of evaluated program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19*(5), 818-841.
- Kwak, J. B.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caregiv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Lee, E. (2004).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careta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S. Y., Park, H. R., Choi, S. E., & Lee, S. J. (2005). Depression and depression relating variables for caregivers of patients with dementia in h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 (3), 250-259.
- Lee, T. W. (2010).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policy implications. I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Ed.),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rformance-oriented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pp. 144-191).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aas, M. L., Specht, J. P., Buckwalter, K. C., Gittler, J., & Bechen, K. (2008). Nursing home staffing and training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older adults's quality of care and life. *Research in Gerontological Nursing, 1*(2), 123-133.
- Monahan, D. J. (1993). Staff perceptions of behavioral problems in nursing home residents with dementia: The role of training. *Educational Gerontology, 19*(7), 683-694.
- Oh, S. W. (2008). *Influence of care worker's job satisfaction on their quality of care service in nursing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Park, M. S. (2009). *Influence of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of care managers: Focused on care managers working at long-term care facility for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 Schonfeld, L., Cairl, R., Cohen, D., Neal, K. K., Watson, M. A., & Westerhof, C. (1999). The Florida care college: A training program for long-term care staff working with memory-impaired residents.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ging, 5*(2), 187-199.
- Sung, H., Chang, S., & Tsai, C. (2005). Working in long-term care settings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Nurses' aid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4*(5), 587-593.
- Tannazzo, T., Breuer, L., Williams, S., & Andreoli, N. A. (2008). A dementia training program to benefit certified nurse assistant satisfaction and nursing home resident outcomes. *Alzheimer's Care Today, 9*(4), 221-232.
- VonDras, D. D., Flittner, D., Malcore, S. A., & Pouliot, G. (2009). Workplace stress and ethical challenges experienced by nursing staff in a nursing home. *Educational Gerontology, 35*(4), 323-341.
- Weon, H. S. (2009). *A study on the educ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home help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